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83> 알음알이 두지 말라

모든 번뇌가 떨어진 고요한 마음자리인 부처님의 세상은 참으로 부처님만이 알 수 있고, 순수한 깨달음으로 오직 깨달은 조사 스님만이 알 수 있다. 중생의 알음알이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도 이 자리를 어떤 경계로서 안다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 중생의 알음알이에 떨어지게 된다. <선가귀감> 81장에서 말한다.

神光不昧 萬古微猷 入此門來 莫存知解.  
신광한 빛 밝은 광명 영원토록 빛이 나니 이 문 안에 들어와서 알음알이 두지 말라.

신광(神光)은 자신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부처님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본지풍광(本地風光)이니, 이 빛은 신광한 빛으로서 어둡지 않은 밝은 광명이다. 만고(萬古)는 만고천추(萬古千秋)를 말하니 신령스런 밝은 광명이 그 끝이 없이 아주 오랜 세월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이고, 휘유(微猷)는 신령스런 밝은 광명이 훌륭한 가르침이나 아름다운 도리로서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 이 문 안으로 들어서면 부처님 세상이 되는데, 이곳은 중생들의 모든 알음알이가 사라지는 곳이다. 여기서 알음알이를 일으키면 다시 중생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사들은 여기에서 다시 중생들의 알음알이를 내지 말라고 한다. 이 내용을 풀이하여 서산 스님은 말한다.

神光不昧者 結上昭昭靈靈也 萬古微猷者 結上本不生滅也 莫存知解者 結上

不可守名生解也 門者 有凡聖出入義 如荷澤所謂 知之一字 衆妙之門也.

‘신광한 빛 밝은 광명’은 이 책의 첫머리에 있는 ‘밝고 밝아 신령스러워서’라고 한 말을 매듭짓는 것이고, ‘영원토록 빛이 나니’는 ‘본디 생겨난 적도 없었고 없어진 적도 없었으니’라고 한 말을 매듭짓는 것이며, ‘알음알이 두지 말라’는 ‘이름에 얽매어 알음알이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말을 매듭짓는 것이다. ‘문’이란 ‘범부와 성인이 드나드는’ 뜻이 있으니, 이는 마치 하택 스님이 ‘알[知]이란 한 글자가 묘한 온갖 이치를 드러내는 문이다’라고 말하

#### 부처님 세상은 알음알이 끊어진 신령스러운 곳 ‘알’이 중생 영역에 있다면 아는 경계 모두 번뇌

는 뜻과 같다.

<선가귀감> 1장에서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본디 밝고 밝아 신령스러워서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었으니,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으니라[有一物於此 從本以來 昭昭靈靈 不生不滅 名不得 狀不得]”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 무엇’은 ‘부처님의 세상’을 말한다. 중생의 언어로써 무어라 말할 수 있는 마땅한 표현이 없기에 억지로 갖다 붙인 ‘그 무엇’이란 부처님의 세상은 어둡지 않아 밝고 밝아 신령스러우므로 ‘신광한 빛 밝은 광명’이라고 하니 ‘신광불매(神光不昧)’라고 한다. ‘신광한 빛 밝은 광명’은 본디 생겨난 적도 없었고 없어진 적도 없었으므로 그 모습 그 자체로

영원토록 빛이 나고 있는 아름다운 가르침이니 만고휘유(萬古微猷)이다. 이 자리는 중생의 알음알이가 모두 끊어진 곳이다. 영원히 변치 않고 빛나는 ‘그 무엇’이 중생의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 모습에 붙인 이름이나 형상에 얽매어 알음알이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알음알이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선가귀감> 4장에서 이것을 ‘온갖 이름을 억지로 갖다 붙여서 혹 마음이라 하고 혹 부처님이라 하며 혹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름에 얽매어 알음알이를 내서는 안 된다. 그 밑바탕에서는 모든 것이 옳지만 여기서 한 생각 움직이면 근본 뜻에 어긋나느니라[強立種種名字 或心或佛或衆生 不可守名而生解 當體便是 動念即乖]”고 표현한다.

吁 起於名狀不得 結於莫存知解 一篇萬藤 一旬都破也. 然 始終一解 中舉萬行 如世典之三義也. 知解二字 佛法之大事故 特舉而終之 荷澤神會禪師 不得爲曹溪嫡子 以此也 因而頌曰.

아! ‘이름도 없었고 모양도 없었으니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여 ‘알음알이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으니 중생에게 한데 얽혀 있는 모든 시비와 갈등을 한마디 말로 모조리 타파하여 버렸다. 그러나 처음과 끝에서 ‘한 가지 알’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온갖 수행’을 들어 보이고 있는 것이, 마치 세속의 고전인 <중용(中庸)>이 ‘하나의 이치’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중간에서 ‘온갖 일들’을 이야기 하다 마지막에 다시 ‘하나의 이치’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其書始言一理 中散爲萬事 末復合爲一理]. 이런 ‘알음알이’란 올바른 불법을 깨치는 데 커다란 해악이 되기에 특별히 그 내용을 들어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택 스님이

조계의 말마디가 되지 못한 것도 이 알음알이 때문이었다. 계승으로 말했겠다.

<선가귀감>을 저술하고 있으면서도 서산 스님은 알음알이를 두지 말라고 한다. 이는 하택 신회(荷澤神會)가 ‘알[知]이란 한 글자가 묘한 온갖 이치를 드러내는 문이다[知之一字 衆妙之門]’라고 하였지만 황룡 사심(黃龍死心)은 ‘알[知]이란 한 글자가 온갖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다[知之一字 衆禍之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우리의 ‘알’이 부처님의 영역에 있을 때는 신령한 빛 밝은 광명으로서 온갖 신통 작용이 나오게 되나, 중생의 영역에 있다면 아는 경계 하나하나가 모두 알음알이로서 번뇌덩어리라는 의미이다. 이 ‘알’이 부처님의 영역에 있으면 모든 중생을 살리는 활법이 되지만 아니라면 모든 중생을 죽이는 살법이 된다.

육조 스님이 ‘나에게 ‘그 무엇’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니 그대로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모든 부처님의 본원(本原)이오 신회의 불성(佛性)입니다.”라고 대답하였던 하택 신회는 육조 스님의 법을 이어받지 못했다. 이는 중생의 알음알이로 대답하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선가귀감>에서 온갖 예로 선가의 종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중생의 알음알이로 풀이하고 있다면 눈 푸른 달마 스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서산 스님은 계승으로 말한다.

如斯學唱明宗旨 笑殺西來碧眼僧. 然畢竟如何 咄 孤輪獨照 江山靜 自笑一聲天地驚.

이처럼 온갖 예를 들어 종지를 밝혔으나 이는 눈 푸른 달마 스님을 조롱하는 것이로다.

그렇다면 끝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 휘영청 달이 밝아 강산이 고요한데 저절로 터지는 웃음소리! 천지가 놀라도다.

■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5>

#### 정신분석과 불교-5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한다. 서양 문화의 2대 조류 가운데 하나인 헬레니즘에서는 원환적(圓環的)으로 보는 반면 또 하나의 조류인 헤브라이즘에서는 직선적이라고 본다.

불교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볼까? 불교의 시간론은 무시무종(無始無終)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의 직선론과 유사하다.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공간화하는 것이며, 계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불교에는 찰나(刹那)로부터 시

늘어놓고 중요한 심리성적인 변화 시기별로 단위를 끊었다. 인간이란 일련의 심리성숙단계를 거쳐 발달해 가며 다섯 가지의 보편적인 단계가 있다고 보았다. 구강기(the oral stage: 생후 1세까지), 항문기(the anal stage: 2-3세), 남근기(the phallic: 4-5세), 잠복기(the latency period: 6, 7세-12, 13세), 생식기(the enital stage: 13, 13세)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출생 후 5년까지, 즉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까지의 어린 시절이다. 이때 겪

#### 불교에서 현재란 업이 무르익어 만들어진 현재 정신분석은 인간의 한 생애만을 대상으로 평가

작해서 곱씹어 이르는 아주 정교한 시간 단위가 있다.

반면에 유희사상은 원환론적이다. 생명이란 업에 따라 여러 가지 세계에 태어나며, 해탈해서 부처가 되지 않는 한 여러 세계를 빙빙 돈다. 불교의 현실이란 이 돌고 도는 유희 가운데 그 존재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 현재 있는 시간을 말한다. 즉 시간을 끊어낸 자리가 현재다. 그 끊어낸 자리에 해당하는 ‘현재’만을 불교에서는 문제로 삼는다. 이 현재란 업이 무르익어서 만들어진 현재다. 이 현재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과거의 업을 청산하거나 덧쌓기도 하고, 미래의 업을 새로이 만들어 가기도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지작용이다. 업이란 의지작용에 따라 지어지기 때문이다.

유대인인 프로이트가 창시한 정신분석에는 헤브라이즘적 시간 개념이 들어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생애를 직선으로

는 심리성적인 사건들이 한 인간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때 까지 성격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고 그 후는 마무리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인간관을 결정론적이며 비관적이라고 평한다.

그러나 프로이트에게도 원환론적인 개념이 있다. 즉 정신분석을 통하여 어린 시절에 결정된 성격의 변화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변화 역시 핵심 구조는 그대로 있고 표면만이 변화한다고 한다. 즉 약간의 합리성과 약간의 선택의 자유만을 인정할 뿐이다.

정신분석은 인간의 한 생애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 갇혀 뱅뱅 돈다. 이에 비하면 불교는 현실을 철저히 파악해 과거와 미래를 뛰어 넘어 마침내 해탈할 것을 추구한다. 직선적, 원환적 시간 둘 다를 완전히 초월하여 대자유를 얻는 것이다.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齊)

음력 윤달이 되면 불자들은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齊)를 지내곤 한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생전에 미리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는 의식을 지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예수는 절대 이웃종교의 메시아를 뜻하

는 말이 아니다. 예수(預修)는 역수(逆修)라고 하는 데 죽은 뒤 정토에 왕생하여 빨리 보리를 얻을 수 있도록, 생전부터 미리 선근공덕을 닦는 것을 말한다. 또 살아 있는 동안에 사후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야 할 불사를 미리 행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정경(灌頂經)> 권11, <지장본원경> 권하 등의 설에 의거한다. 생존 중에 범행을 불어거나, 위배(位牌)나 석탑에 주서해 주는 것도 예수의 의미이다.

<관정수원왕생심력정토경>에는 ‘4부대중이 이 몸이 무상한 줄 알고, 부지런히 닦아 보리도를 행하러거든 죽기 전에 미리 삼칠일을 닦매, 등을 켜고 번

을 달고, 스님을 정하여 경전을 읽고 복음을 지으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소원대로 과보를 얻는다’고 하였다. 지금도 신도들이 생전에 예수재를 행하고 있다.

예수재를 할 때 단의 구조는 법신 보신 응신을 모시는 삼신불단(三身佛壇)은 법당 안의 중앙에 설치하고 법당 안의 동쪽에는 지장단을, 서쪽에는 신중단을 설치한다. 법당 밖에는 명부 시왕단을 설치하는데 이 구조는 밀교의 만다라와 같은 구조이기도 하다.

강지연 기자

##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 六祖寺 목요강좌 육조단경 강설



선원장 玄繼스님

六祖스님은 우리 개개인이 각자 지니고있는 성품, 곧 ‘自性’이 부처임을 확실하게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누구나가 부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못 믿어 살고 있습니다.

못 믿고있는 우리들의 못한 생각들이 이 강설에서는 살살히 깨부숴 줄 것입니다.

禪공부는 자기 자성을 부처라고 믿어질 때 시작되는 공부입니다. 이번 강좌는 좌선 실참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자성을 깨치는 선 공부는 어떤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깨달음의 공부입니다. 많이 동참하시어 본래 자기가 밝아있는 부처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9월 6일 개강, 08년 1월 회향.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교재는 각자 지참, 혹은 육조사에서 구입 가능)
- ◆ 참가대상 : 선공부에 뜻이 있는분은 다 入房할 수 있습니다.
- ◆ 동참비 : 4개월간 15만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6701-04-017439, 예금주 : 육조사)

※정원제 이므로 조기예 入房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Tea Time이 있음.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

Phone 02)953-5291